

재점검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순종이 어려운건
내가 너무 많아서는
아닐까?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une 12, 11:00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시편 127:1-2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박진성 집사, 최선운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2, *4절
살과 세상으로	* 찬 송 - 588장 / 공중나는 새를 보라 (통일찬송 307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4:10-18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6월은 “재점검의 달”입니다.

2022년 후반기를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예 더욱 힘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다.

1.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2. Picnic 주일 오늘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예배 후 교회 잔디밭에서 New Life Church의 youth ministry team과 학생들을 초대해 친교를 나눕니다.
3.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의 한 주간을 지킵니다.
4.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5. 토요일 새벽기도 (오전 7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오순절의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6월의 사역 - 피크닉(12)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12-18)
 선교주간(19-22) 선교주일(23)
 상반기 결산 주간(23-7/2)

♥ 6월 생일축하 ♥ 김영은(8) 오승국(15) 이정연(24)

기도제목

1. COVID-19의 휴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를 위해
2. 가정의 안전이 위협받은 교우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3. 이사하는 가정을 위해
4.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자녀와 각 자녀의 유익한 방학을 위해
5. Youth 사역(Joint ministry)의 성장과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6/5	6/12	6/19	6/26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6/5	6/12	6/19	6/26
	최선윤집사/박진성집사		구 민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6월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과 동행하면?** / 출애굽기 11:1-10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이들은 내일을 염려한다. 역술인의 점괘를 통해 불안한 현실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고도 한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창조자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열 번째, 마지막 재앙에 앞서, 그 결과를 모세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셨고, 이스라엘의 노고를 보상해주시며 준비를 갖추어 미래를 향해 출발하도록 하셨다. 그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불확실성과 불안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 시편 127:1-2

어떤 인생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필요를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정성을 다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 시편 127:1-2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수고한다.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노력하면, 좋은 기회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하지만 삶이 항상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아 좌절을 겪을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떤 노고가 참 된 가치와 결과를 가져오는가. 시편 127:1-2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의 노고는 참 된 의미가 있음을 권면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 행복한 인생이나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평화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세울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사회는 사람의 욕심과 탐욕만이 작용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인간의 그런 속성을 대변 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하나님이 창조자와 주권자가 되시는 진리를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의복과 비교하셨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뤘던 솔로몬 왕의 영화를 상징하는 그의 의복도 자연의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자연은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들을 이루도록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돌아 보면 결코 나의 힘만으로 나의 인생을 살지 않고 가정과 자녀를 유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충족되지 않은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꾸려온 인생, 세워가는 가정, 성장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시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스케이트를 배웠다.
그 당시 신설동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실내스케이트장이 생겼는데,
학교에서 그곳에 단체로 가서 스케이트를 배우도록 한 것이다.
나는 보기보다 운동 신경이 발달한 편이다. 그래서 그날로 스케이트를
배웠다. 코너를 도는 것까지 마스터했다. 스케이트 타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온통 스케이트 생각뿐이었다.

스케이트 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스케이트를
하나 사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사줄
여유가 없었다. 머뭇머뭇하시더니 머리를 긁으시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스케이트도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나는 그날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했다. 아버지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철없이 아버지에게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하여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든 것 같아 참으로 죄송했다.

다른 부모 같았으면 다 큰 자식이 철없이 집안 사정도 모르고
스케이트 사달란다고 아마 야단을 치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다.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당신이 무능하여
가난한 것을 자식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여기시는 분이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을 가보지 못했다.
잘못하면 사춘기에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린 시절 가난의 흔적이나 상처가 거의 없다. 가난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다행히 나에게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아버지가 내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의 부족함을 미안해할 줄 아는 마음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된다. 일단 그런 자세가 되면 교육은
누구나 가능하고 언제나 가능하고 어디서나 가능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사과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자존심과 권위 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모의 권위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어느 집회에서 만난 장로님께 귀한이야기를 들었다.
그 장로님의 큰딸은 자기 주관과 고집이 센 자녀였는데 어느날 장로님이
화가 나서 그만 딸의 뺨을 때렸다고 한다.

그러자 그 딸은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는 장로님이라고 그러시지만 저는 아버지에게서 전혀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때리시려면 더 때려보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장로님은 잠시 자기 방에 가서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딸에게 가서 딸의 말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자 딸도 즉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다고 한다. 그 후로는 부녀 사이가 좋아져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장로님과 딸 사이의 아주 큰 위기였다. 만일 그때 장로님이 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셨다면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주 적절한 때에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여 벼랑 끝에 선 것 같이 위태위태하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다. 부모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자기의 부족과 실수에 대해 미안해 하고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가?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김동호,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속도는 상관 없죠.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영양도서 3권 183권

“자녀를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미안하다’입니다.”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